

## 국방과학연구소장에 박용득 (예)육군 중장 취임

“미래전을 이끌 전력체계 기술개념 발전시켜야”



**국방** 과학연구소장 취임식이 지난 2월 18일 김동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 강당에서 거행돼 박용득

(朴龍得, 61, 육사22기) 예비역 중장이 조용수 소장의 뒤를 이어 제17대 소장으로 부임했다.

박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는 미래전을 이끌 수 있는 전력체계, 기술발전 개념을 설정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투자·교류하면서 민·군 겸용기술 뿐만 아니라 국방과학기술의 특성도 고려하면서 민수기술의 활용과 함께 과감한 아웃소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모두 긍지와 자부심·사명감을 갖고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소장은 육군교육사 교육훈련부장과 3군 동원처장, 57사단장, 2군 참모장, 11군단장, 육군교육사령관,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준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국방연구원장에 황동준 방산학회장 취임

“국방 모든 분야에 효율성을 촉진하여 선진군대 육성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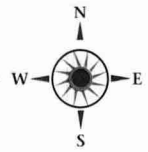
**한국** 국방연구원 원은 지난 3월 6일 김동신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황동준(黃東準, 57) 박사가 임기만료된

장창규 원장의 뒤를 이어 제8대 원장에 취임했다.

황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방 방향이 단순히 대북 대응만 염두에 두어서는 곤란하고, 주변상황 전

체를 고려한 '전방위적 대응'이 되어야 하며, 우리 군도 장차 고도로 정보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가진 첨단 정예군으로 육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당 연구원은 종래의 미래 지향적 정책연구 결과를 더욱 발전시킴은 물론, 군사전략과 소요 무기체계, 자원 및 인력관리, 정보화 등 국방의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촉진되어 우리 국방이 지향하는 '21세기 신국방' 과 '선진 군대 육성' 이라는 과업이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임 황원장은 무기체계 획득 및 방위산업 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이번 황원장의 취임은 예비역 장성을 외부에서 영입하던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내부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임 황원장은 육사 24기로 미국 일리노이대(Univ. of Illinois)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한국국방연구원 창설멤버로서 3차례의 부원장과 자원관리연구부장, 무기체

계연구부장 등의 요직들을 맡아 왔으며, 한국방위산업협회장, 국방부 원기관리위원, 국방부 개혁추진위원 등을 맡아 왕성한 활동을 해 왔다.

## 국방大, 국제안보학술대회 개최

### 「전환기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평화」 주제로



**국방** 대학교 황규식 총장(육군 중장)은 2월 28일 국방大 세종대강당에서 한국, 미국, 일본, 노르웨이 등의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환기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을 맞아 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하에서 한반도 주변 4강국의 역동적인 안보관계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개회사에

이어 주제발표, 토론, 폐회사,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황규식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군사분야에서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국제안보학술회의가 한반도의 긴장상황을 완화시키고 동북아의 잠재적 불안정성을 축소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긴장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허남성 안보문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아키오 와타나베 일본 평화연구소 소장의 「동아시아의 역학구도 변화와 한반도 평화과정에 미치는 의미」와, 멜빈 거트브 미 포틀랜드 주립대 교수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북한에서의 공동안보」 및 스타인 테네스 노르웨이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의 「중국·베트남·북한의 대미 접근 비교」에 관한 연구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서 이강석 국방大 교수와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및 오승렬 통일연구원 박사 등의 지정토론자와 회의에 참석한 일반 참가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국방 중기계획 열람본 공개

### 기업들의 군수물자 조달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보 공개

**국방** 부는 국방중기계획('03~'07년)중 전력 투자 사업분야와 관련된 장비/물자획득 및 시설공사 부분을 발췌한 열람본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국방부 민원실 등 7군데에서 지난 3월 4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방중기계획 열람본은 매년 발행되는 국방중기계획 내용 중 기업들의 군수물자 조달계획 수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원하는 모든 기업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부분만 발췌한 것이다.

이는 국방투자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방산업체의 안정적 생산계획 수립을 도모하기 위해, '03~'07 중기계획에 반영된 투자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의 세부장비를 품목별로 재분류하여 연도별 수량 및 재원을 수록하고 있다.

이번 열람본은 열람본 해설과 장비획득사업·물자획득사업·시설공사 등 크게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들의 관심분야를 고려하여 장비분야는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 일반의무, 정밀측정장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물자분야는 탄약, 화학물자, 기타 일반물자로 분류해 연도별 획득물량과 소요금액을, 시설공사는 공사별로 연도 계획자금을 수록해 열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열람본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부 민원실, 조달본부 상당실, 계룡대 민원실, 육·해·공군군수사 등 총 7군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열람자는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소속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한국 항공산업의 힘찬 웅비(雄飛)

### 싱가포르 에어쇼(Asian Aerospace 2002)를 다녀와서



▲ 참관기를 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T-1수출팀 權晟載 팀장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개최된 Asian Aerospace 2002는 프랑스 파리 에어쇼, 영국의 판보로 에어쇼와 더불어 세계 3대 에어쇼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 100위권의 항공업체 대부분이 참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우주 및 방산장비 전시회로 짝수 해 2월에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 9.11 테러의 영향으로 참가규모가 예년에 비해 줄었으나, 42개국 928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해외 주요인사 등 초청인원 22,000명과 30만명에 이르는 일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으며, 세계 항공산업

의 흐름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손색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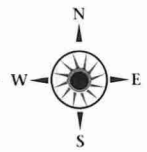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지금까지 사실상 전시의 목적보다는 참관을 위주로 에어쇼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KT-1 훈련기의 양산 및 해외 수출계약, T-50 고등 훈련기의 성공적 개발을 바탕으로 이번 에어쇼에서는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인 T-50 고등훈련기와 KT-1의 무장형인 XKO-1 저속통제기, KMH 다목적 헬기 등의 모형과 항공기 지상훈련장비인 시뮬레이터를 전시하였으며, 특히 우리 손으로 제작한 KT-1 기본훈련기 2대가 참가하여 시험비행을 실시함으로써 항공기 제작 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 ■ 국산항공기 우수성 세계에 과시

2월 26일 이른 아침, KT-1 소개를 담당하고 있는 나는 설레이는 맘으로 전시장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늘로 비상하는 KT-1과 T-50 대형 모형이 걸린 실내 전시장에는 항공 관계자와 관람객의 시선과 발길이 계속 이어졌고, 특히 해외 항공 관계자들은 시범비행이 계획되어 있는 KT-1 항공기가 한국의 순수 기술력에 의해 독자 개발되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생산 대수, 성능 및 수출 현황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야외전시장에는 회색 군용기사이애 흰색과 빨간



▲ 건국이래 최초로 해외 에어쇼(싱가포르 에어쇼 : Asian Aerospace 2002)에서 시범비행을 선보인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 'KT-1 기본훈련기'

색이 어우러진 날렵한 KT-1과 하얀 정비복을 입은 정비사들이 뜨거운 적도 햇볕아래 현지 말레이시아인과 구별이 안될 정도로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비행을 지원하라 바쁘게 손을 놀리고 있었으며, 하늘에서는 해외 우수업체의 항공기 시험비행이 실시되었다.

싱가포르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후보 기종인 프랑스 라

팔과 미국 F-15 전투기의 공중전이라도 치르는 듯한 홍보전에 이어, 특유의 터보프롭 엔진소리와 함께 KT-1항공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건국이래 최초로 해외 국가의 하늘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가 비행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싱가포르 하늘 속으로 빨려들어간 KT-1은 급선회 기동

- ▼ T-50 고등훈련기와 KT-1의 무장형인 XKO-1 저속통제기, KMH 다목적 헬기 등의 모형과 항공기 지상훈련장비인 시뮬레이터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시한 KAI 실내 전시장



과 수직기동, 배면기동, 스톨 턴(Stall Turn : 항공기 속도가 제로인 상태에서 항공기 제어), 스펀(Spin : 항공기가 나선형을 그리며 낙엽처럼 떨어지는 기동) 등 고난도 기동을 선보였다.

극동의 한 작은 나라에서 온 항공기의 우수한 비행성은 해외 전시 참가자들의 찬사와 박수갈채를 자아내기에 충분하였으며, 6년전 개발팀의 일원으로서 시제 3호기의 초도 비행시 느꼈던 흥분과 자부심 이상의 감정이 내 마음을 사로 잡았다.

또한 세계적인 에어쇼에 우리 나라 항공기가 전시되고 시범비행을 한다는 것에 “우리 나라에서 만든 비행기가 맞나요?”, “우리 나라 비행기가 이 곳에 와서 시범비행을 하는 것이 신문에 크게 났다. 매우 자랑스럽다”라며 현지 교민과 상사 주재원들에게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기회가 되어 항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보람을 느꼈다.

이밖에 영국 BAE사는 우리 나라 T-50 고등 훈련기의 경쟁기종인 Hawk 고등훈련기의 Full 스케일 모형 전시와 실물기의 시범비행을 선보였으며, KT-1 항공기의 경쟁기종인 브라질 Embraer사의 Super Tucano는 항공기 전시는 하지 않았지만,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싱가포르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 구매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대상 훈련기들은 Full Glass Cockpit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조종사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 기본훈련기 및 고등훈련기 모두 프랑스 라팔, 미국의 JSF 등 최첨단 항공기와 비슷한 형태의 조종실 Lay-out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힘찬 디딤돌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는 9.11 사태 이후 전반적인 항공산업의 침체를 반영하듯, 큰 비즈니스 계약이나 이벤트는

▼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 항공기인 'KT-1 기본훈련기'의 시승비행을 마치고 만족감을 표명한 싱가포르 공군의 시험비행조종사 치온(Mr. Philip Chionh) 소령(가운데)과 동승한 우리 공군의 시험비행 조종사 장창렬 소령(左),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김형보사장(右)





▲ 'T-50 고등훈련기 이스라엘 수출 추진' 과 관련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있는 한국·미국·이스라엘 방산업체 대표.  
 오른쪽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안택순 부사장, 록히드 마틴사의 스티븐슨 부사장 (Mr. Mac Stevenson),  
 IAI사의 에크하우스 부사장 (Mr. Shimon Eckhaus)

없었지만, 생존경쟁 차원에서 잠재시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항공 업체들의 마케팅 활동이 치열하였다.

민간 항공분야에 있어서는 대형 여객기 시장에 비해, Business Jet 및 Commuter기의 경쟁이 치열하여, 캐나다의 Bombardier사, 프랑스의 Dassault사, 미국의 Gulfstream사 및 Raytheon사가 각각 2~3 종의 항공기를 전시하여 활발한 홍보전을 펼쳤다.

군수 분야에서는 현재 훈련기 및 전투기의 교체를 고려하고 있는 싱가포르 현황을 반영하듯, 기본훈련기 분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T-1)과 스위스 Pilatus사(PC-9M), 브라질 Embraer사(Super Tucano), 고등훈련기 분야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T-50)과 영국 BAE사(Hawk),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분야에서는 프랑스 Dassault사(라팔)와 미국 Boeing사(F-15E)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번 에어쇼를 통해 우리 나라는 싱가포르 조종사의 KT-1 시승 행사와 T-50 고등훈련기 이스라엘 수출을 위한 IAI사와의 MOU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싱가포르 공군 조종사의 시승과 우수한 성능에 대한 호평은 KT-1훈련기의 싱가포르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또한 T-50 고등훈련기의 공동개발 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과 미국 록히드 마틴 양측은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업체인 IAI사와 T-50 수출을 위하여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MOU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미래 고등훈련기 시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이번 싱가포르 에어쇼는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수준을 전세계에 과시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특히 훈련기 분야에서 세계 유수 항공사와 당당히 경쟁하고 홍보전을 전개함으로써 국산 항공기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선진항공산업기술의 동향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경주한다면,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와 여객기가 세계적인 에어쇼 창공을 누비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